



즉시 배포용: 2021년 3월 1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** 주지사, 뉴욕주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된 날로부터 1년 후 뉴욕주 백신 태스크포스가 만장일치로 J&J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발표

*이번 주 뉴욕주에서 존슨 앤 존슨 백신 164,800회분 접종 예상*

*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이 백신은 보관 및 저장 조건이 용이*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식품의약국(Food and Drug Administration, FDA)의 자문 위원회의 비상 사용 승인 권고에 따라 얀센 제약(Janssen Pharmaceuticals)/존슨 앤 존슨(Johnson & Johnson) 코로나19 백신을 뉴욕주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(New York State Clinical Advisory Task Force)가 만장일치로 접종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뉴욕은 이번 주 존슨 앤 존슨 백신을 약 164,800회분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추가 접종 분량은 뉴욕주가 12주차에 공급받는 화이자(Pfizer) 및 모더나(Moderna)의 1차 접종분 422,780개 및 2차 접종분 290,500개, 총 878,080 접종분에 더하여 공급됩니다. 이로 인해 뉴욕주는 가장 많은 백신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.

**Cuomo**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1년 전 오늘, 뉴욕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코로나19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. 지난 365일 동안 커다란 고통과 손해에 직면했지만,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뉴욕주의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는 추가로 코로나 백신 접종 권고를 발표하였으며, 이것은 회복 과정의 일환입니다. 존슨 앤 존슨은 보관 및 저장이 용이한 단일 백신을 개발했으며, 이에 따라 주정부는 더 많은 뉴욕 주민에게 쉽게 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많은 일이 있지만, 이번 백신의 승인으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 이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"

존슨 앤 존슨 백신은 1회로 접종이 완료되며, 보관 조건이 용이합니다. 뉴욕주는 파트너와 함께 백신의 우선 순위 지정 및 공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

2020년 9월 24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연방 정부 승인을 받은 모든 코로나19 백신을 검토하는 한편 바이러스 대응 효율성을 개선하고 뉴욕주에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과학자, 의사,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임상 자문 태스크포스를 조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태스크포스는 이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용을 권고했습니다.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